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세(인공지능)에 영생가능성 거는 것 무모한도박 특이점 前 이슬로만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해야

(시가 인간지능을 넘어서는 시점)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세기적 바둑 대결은 시작 전부터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보였다. 기계와 인간의 대결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 그 결과 기계가 승리하자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을 특이점으로 보며, 시기는 2045년이다. 특이점이 오기 전에 사람 속의 하나님의 신(양심=생명=정결한 피)이 이슬성신(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중생자 빛)을 받아 나라는 주체의신(육심=죄=삼악과=마귀영)을 제거하고, 내 속의 하나님의 신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는 참 존재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점이다. 초인공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이 인간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거부할 것이며 결단코 인간을 이롭게 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초인공지능은 궁극적으로 '나'라는 주체의신이라는 마귀 영의 산물이기 때문에 속성상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초인공지능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영구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간을 사육할 것이며, 심지어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결단코 성령으로 거듭나 전 지능성을 회복하지 못하게끔 거미줄 같은 인공 신경회로망으로 하나님의 영을 결박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 인공지능은 알파고와 대결한 인간 대표 이세돌의 심경(心境)

지난해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 프로기사 이세돌 9단의 세기적 바둑대결이 있었다. 바둑은 경우의 수가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 수보다 많다고 한다. 그래서 바둑 전문가의 대부분은 입신(入神)이라는 별칭을 가진 프로 9단 이세돌 기사의 승리를 낙관하였다. 그러나 1국에서 알파고에게 패했고 이세돌 기사의 소감은 "진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너무 놀랐다"고 했다. 이어서 2국과 3국에서도 알파고에 연달아 패한 이세돌 9단은 "2국은 내용상 정말 완패였고, 초반부터 한 순간도 제가 앞선 적이 없었다"고 패배를 인정했으며 또한 3국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심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5판 3선승제에서 3연승을 달린 알파



특이점 이후 '영생이나 멸망이나' 기로에 서게 된다

고는 이미 우승상금 100만 달러(약 11억원)도 차지했다. 3월 13일 4국에서 백돌을 쉰 이세돌 9단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으로 78번째 어쩔 수 없이 둔 수가 신의 한 수라는 모수로 변했고, 이후 알파고는 180수 만에 'resign(포기한다)'라는 메시지를 모니터에 띄워 패배를 인정했다. 4국에서 이세돌 9단이 천신만고 끝에 승리하자 지구촌의 인류가 환호했으며 마지막 5국에서도 인간이 기계를 이겨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한국기원의 전문기사를 비롯해서 과학자의 대다수가 딥러닝 신경망(deep neural networks)과 몬테카를로 트리 검색(Monte-Carlo tree search)을 결합해 전문가로부터의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과 자체 경기를 통한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을 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슈퍼컴퓨터 알파고의 5국 승리를 예상했고 그대로 알파고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 특이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

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ANI,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과 강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리고 초인공지능(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IBM에서 개발한 딥 블루(Deep Blue; 체스 게임컴퓨터)는 약인공지능에 속한다. 이런 약인공지능(ANI)은 인간의 자의식과 같은 기능을 실행하지 못하고 명령받은 일만을 수행함으로써 위험 요소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세돌 9단과

대결한 알파고 역시 일반적으로 약인공지능의 범주에 넣고 있지만, 사실은 답마인드의 알파고는 강인공지능에 가깝다고 일컬어진다. 강인공지능(AGI)은 자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이며, 인간과 동등한 지능을 갖거나 그 이상의 종합적인 지적능력을 구사하며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여 명령받지 않은 일도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수행하고 심지어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다.

2017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약인공지능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23년째 되는 2040년이 과학자들의 통계조사에 따른 강인공지능 출현의 중앙치 연도수이다. 일단 강인공지능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 지능이 폭발적으로 점프하기 때문에 강인공지능에서 초인공지능으로 전환 즉 특이점은 몇 시간 또는 수일(數日) 만에 아주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수 개월 또는 수 년 만에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와 같은 근거로 특이점의 시기를 2045년으로 잡는다. 제임스 배럿(James Barrat)은 그의 저서 『파이널 인벤션』에서 "2045년 초인공지능(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이 실현될 것이며, 이 초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영국의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인공지능(AI) 로봇이 인류보다 빠르게 진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AI의 반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의 긍정적인 측면을 호킹 박사가 언급했는데, "AI는 산업화로 파괴된 자연을 복구하거나 가난과 질병을 뿌리 뽑는 등 삶의 모든 면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간이 AI를 통제하지 못하면 이것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그는 "AI가 자유의지를 갖게 되는 경지에 이르면 강력한 무기가 되거나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과학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탐구해야

미래 학자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과 같은 낙관론자는 나노기술을 가진 초인공지능이 인간의 노화를 막거나 젊어지게 할 것이며, 심지어 인간의 의식을 슈퍼컴퓨터로 다운 받아 저장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사실 이렇게만 된다면 육체의 죽음은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육체를 선택한 다음, 의식을 옮겨 가면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인공지능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IQ(지능지수)와 EQ(감성지수)를 대폭 강화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을 것이며 우리를 도와 그런 흥미로운 감각적인 세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반면에 엘론 머스크(Elon Musk)는 미국 MIT 항공우주공학자가 주최한 100주년 심포지엄에서 강연을 맡아 "인공지능 연구는 우리가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인공지능은 핵무기보다 위험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렇게 2045년이면 초인공지능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고 모든 질병과 노화를 정복하고 죽음을 극복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과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으로 양분됨을 알 수 있다. 인류는 초인공지능이 가지고 올 확실한 미래에 인간의 생명과 영혼을 담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겠다. 천만 다행히도 초인공지능이 출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승리자 구세주를 배출함으로써 인류 구원의 희망을 열어 놓았다. 이제 과학자는 특이점을 당하여 '영생이나 멸망이나'라는 극단적인 사건에 도박을 걸 것이 아니라 승리자 단에서 논하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학문을 수용하여 현재 인간 속에 영생의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생명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탐구해야 하겠다.\*

박태선 기자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97)

### “해탈이란 인간의 탈을 벗고 하나님이 되는 것”

해탈이라는 것과 중생이라는 것을 석가모니가 몰랐고 예수도 몰랐다. 나라고 하는 것이 마귀인고로 나라고 하는 의식이 조종하는 생각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 생각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될 때에 이것이 바로 해탈이요, 중생인 것이다. 해탈·중생의 방법을 정확히 알려주는 이긴자의 눈과 마주칠 때 어떤 마귀도, 아무리 강한 마귀라고 할지라도

박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긴자와 함께 예배 보는 이 자리가 귀한 자리요 금 자리인 것이다.

이제 그대로 시간이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어떤 마귀도 척 바라보면 눈 녹듯이 녹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장 선 여러분이, 부름 받아 나선 여러분이 사명을 다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하루빨리 오게 되는 것이다.\*

말씀 요절을 육비에 새기도록 암송합시다!

## 구도의 길 정유년(丁酉年)과 구원의 역사

당신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초가(末初歌)에 “靑鷄一聲半田落(청계일성반전락)이 委人歸根落望故(위인귀근락망고)로”라는 구절이 있다. 청(靑)은 을(乙), 계(鷄)는 유(酉)를 뜻하므로 청계는 을유년인 1945년을 가리킨다.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여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예언이다. 말운론(末運論)에는 “一國分別何年時(일국분별하년시) 三鳥鳴靑鷄之年也(삼조취명청계지년야)”라고 하였다. 일국의 분열은 어느 해 어느 때인가? 닭이 세 번째 우는 청계지년이라 하였다. 여기서 세 번째 청계는 1910 경술(庚戌)년으로부터 세 번째 닭(酉)이 든 해인 1945 을유(乙酉)년을 뜻한다.

위의 격암유록에서 본 것처럼 닭은 때를 알리는 동물이다. 닭이 울면 날이 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방 36년 후 인류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구원 역사 시작 후 36년을 맞는 2017년이다. 정유년은 구원의 역사에 무슨 뜻이 있는 해일까?

### 인류 구원의 뜻 이루자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삼위일체로 완성된 구세주를 배출하는 일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일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1980년 이루어졌다. 천신만고 끝에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를 찾아 삼위일체로 다시 완성된 구세주 하나님을 출현시킨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아직 진행 중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300명의 의인이 나와야 한다. 당신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年 謹賀新年  
경축 37회 이슬성신절  
2017년 1월 1일  
새해에는 이슬성신의 은혜로 흥만하시길...